

음대 이아경 학장, 데뷔 30주년 콘서트 성료

이환희 기자 hwanhee515@khu.ac.kr

【서울】 지난 25일 예술의전당에서 음악대학 이아경(성악) 학장 데뷔 30주년 콘서트 ‘마이웨이(My Way)’가 열렸다.

우리학교를 졸업한 이 학장은 1995년 25세의 나이에 국립오페라단 주역으로 데뷔했다. 이후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메조소프라노로 성장했다. 메조소프라노는 소프라노와 알토 사이의 음역을 가진 성악가다.

이 학장은 2003년 벨리니 성악 국제 콩쿠르에 한국인 최초로 우승하며 세계 무대에서 존재감을 드러냈다. 이후 5개의 국제 콩쿠르에서 1위를 차지하며 세계적인 성악가로 활동했다. 2010년 후학 양성을 위해 모교인 우리학교 음악대학 교수로 부임했다.

이번 공연에는 김도석(성악 1982) 피아니스트가 함께했다. 우리학교 성악과를 졸업하고 대학원에서 피아노를 전공한 김 동문은 유럽 각국의 음악회에서 수많은 성악



이 학장은 “같은 공간과 시간에 함께 나는 호흡과 울림의 감흥이 아직도 남아 있다”고 소감을 전했다. (사진=이 학장 제공)

가와 공연을 해왔다. 이 학장과는 2018년 슈만 음반 발매 기념 콘서트 이후 7년 만에 호흡을 맞췄다. 이 학장은 지난 30년을 돌아보며 인생을 사계절로 표현하는 콘셉트로 이번 공연을 준비했다. 사계절별로 4곡씩, 프롤로그·에필로그 곡과 앙코르곡을 합해 총 19곡을 선보였다.

이 학장은 파란 드레스를 입고 무대에 섰다. 프롤로그 ‘음악에(Andie Musik)’로 공연을 시작했다. 이

어 ‘봄’ 순서에서 ‘사랑스러운 나의 연인 (Caro mio be)’, ‘봄의 찬가 (Frühlingsglaube)’, ‘산들바람아, 불어라(Spirate pur, Spirate)’, ‘또 한 송이의 나의 모란’을 불렀다. ‘여름’에선 ‘하바네라(Habanera)’, ‘그대, 사랑하오(Ich liebe dich)’, ‘님이 오시는지’, ‘아침의 노래(Mattinata)’를 불렀다.

‘가을’ 순서가 시작되자 이 학장은 흰 드레스로 바뀌었고 큰 박수를

받으며 다시 관객 앞에 섰다. ‘오, 나의 사랑하는 그대(O del mio amato ben)’, ‘누군가 내 마음을 적시네’, ‘꿈(Sogno)’, ‘그대 음성에 내 마음 열리고(Mon cœur s'ouvre à ta voix)’ 순으로 공연이 이어졌다. 마지막 ‘겨울’ 순서는 ‘내게 안식을 주소서(Ridonami la calma)’, ‘눈’, ‘오, 소나무여...(O Tannenbaum)’, ‘날 잊지 말아요, 물망초(Non ti scordar di me)’ 순으로 마무리됐다. 곡이 끝날 때마다 성악가에게 보내는 찬사를 의미하는 ‘브라바!’가 객석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계절마다 한국 가곡이 빠지지 않은 점이 공연의 특징이었다. 이 학장은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 가곡에 대한 애정이 있다”며 “관객들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한 곡씩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에필로그 곡 ‘나의 여정(My Way)’은 공연의 화룡점점이었다. 이 학장의 압도적인 성량과 섬세한 감정 표현이 돋보였다. ‘And did it my way’라는 가사를 부르는 장면은 마치 이 학장이 지난 커리어를 자랑스럽게 돌아보는 듯했다. 앵콜

곡으로는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의 ‘모든 산을 올라가보세요(Climb Every Mountain)’를 부르며 가장 큰 박수갈채 속에 콘서트를 마쳤다.

이 학장은 “같은 공간과 시간에 함께 나는 호흡과 울림의 감흥이 아직도 남아 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지난 30년을 기념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스스로 돌아보고 관객들에게 ‘제가 이런 음악을 하는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보여드린 공연이었다”고 덧붙였다.

현직 교수가 예술의전당에서 개인 콘서트를 여는 것은 흔치 않다. 이 학장의 제자들과 김진상 총장, 한균태 전 총장 등 우리학교 구성원도 객석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학장은 “음악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독창회를 할 수 있다는 게 큰 영광이다. 우리학교 학생들과 교수님들께서도 광장히 기뻐해주셨다”고 말했다. 이 학장은 “학생들이 볼 때 우리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앞으로 멋진 음악 인생을 펼칠 수 있겠다는 희망을 주고, 학교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싶다”는 꿈을 말했다.

대학농구 개막, 첫 경기 1점 차 석패

이환희 기자 hwanhee515@khu.ac.kr

【국제】 ‘2025 KUSF 대학농구 U-리그’가 지난 17일 개막했다. 우리학교가 참가하는 남자부는 12개 대학이 최정상 자리를 위해 경쟁한다.

우리학교는 지난 21일, 선승관에서 열린 시즌 첫 경기에서 한양대에 57-58로 패했다.

전반까지는 23-29로 밀렸지만 3쿼터 중반 이상현(스포츠지도학 2022) 선수의 연속 5득점과 박창희(스포츠지도학 2024) 선수의 3점슛으로 내리 8점을 올렸고, 46-44로 경기를 뒤집었다. 하지만 4쿼터, 25초가 남은 상황에 한 점 차로 이기고 있던 중 상대에게 실점하며 역전을 허용했다. 경기의 마지막이었던 11.8초의 공격 기회에서 득점에 실패하며 결국 패배했다.

지난 시즌 팀 내 최다 득점과 39.6%의 높은 3점슛 성공률을 기록했던 배현식(스포츠지도학 2024) 선수는 이번 경기에도 15득점으로, 양 팀 선수를 통틀어 가장 많이 득점했다.

농구부 김현국 감독은 “첫 경기



우리학교는 지난 21일, 선승관에서 열린 시즌 첫 경기에서 한양대에 57-58로 패했다. (사진=농구부 제공)

결과가 아쉬웠지만 장기 레이스기 때문에 이번 패배를 약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소감을 남겼다. 주장 이상현 선수는 “첫 시험에서 잘 풀린 점과 그렇지 않은 점이 명확히 보였기 때문에 개선해 나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우리학교는 12개 대학 중

6위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했지만, 플레이오프 1라운드 건국대를 상대로 76-77로 패배하며 8강에서 탈락했다. 지난해에는 4학년 없는 시즌을 보냈기 때문에 전력이 완전하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있었다. 4학년 선수 전원이 선수 활동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올해는 작년 전력에 5명의 유망한 신입생들이 힘을 더한다. 신입생 중 3명의 선수가 대학 무대 첫 경기부터 가능성을 보여줬다. 김 감독은 “선수단 텃스가 많이 두꺼워졌다”며 “신입생도 충분히 경기에 나올 기량이고, 큰 활약을 하려는 것보다는 1학년답게 각자 맡은 역할을 다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우 선수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주장을 맡는다. 지난해 농구부의 4학년 선수 모두가 운동을 그만둔 여파로, 이례적으로 2년 동안 주장을 맡게 됐다. 우 선수는 “1년 동안의 주장 경험이 있어서 팀을 이끄는 역할을 작년보다 수월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첫 경기에서는 아직 우리의 기량이 절반도 안 나왔다고 생각한다”며 “지난해에 호흡을 맞췄던 선수들이 그대로 있고, 부족했던 점을 메워줄 신입생들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올해는 U-리그 4강까지 진출하는 게 목표”라고 덧붙였다.

김 감독은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 김 감독은 “올해는 U-리그, MBC배 전국대회 모두 결승까지 가는 게 목표고, 수비가 끈끈한 우리학교 본연의 농구를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우 선수는 “학기 초에 많이 바쁜 텐데, 농구부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선승관으로 응원하러 와주시니까 힘이 난다”며 “앞으로 있을 경기들도 계속 응원하러 와주시면 승리로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로 응원을 부탁했다.